

OVERWATCH 2

HEROES ASCENDANT

# 폐허 재건

CORINNE DUYVIS와 SANGU MANDANNA 단편 소설

이야기  
*CORINNE DUYVIS* 와 *SANGU MANDANNA*

그림  
*SARA LULL*

편집  
*CHLOE FRABON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AMBER THIBODEAU*

디자인  
*JESSICA RODRIGUEZ*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IAN LANDA-BEAVERS*

게임 팀 자문  
*JEFF CHAMBERLAIN, GAVIN JURGENS-FYHRIE,  
PETER C. LEE, MIRANDA MOYER, DION ROGERS*

도움 주신 분  
*IAN LANDA-BEAVERS, MADDIY COOK*





**사**티아 바스와니가 니란 프룩사마니를 마지막으로 본 지 11년이 지났다.  
사티아의 인생에서 니란이 사라진 지 11년인 셈이다.

그리고 지금, 사티아는 니란의 집 앞에서 그간의 상처는 애써 잊은 채 부탁을 하려고 섰다. 산제이가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조언을 해댔고, 비슈카르 코퍼레이션 법무팀에서 급히 대본을 써 주었다. 사티아는 가짜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니란의 집으로 향했다.

사티아는 항상 임무를 철저하게 검토했는데, 이번 임무는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고마워요.” 조종사에게 목례를 한 사티아는 제트 헬리콥터에서 나와 대서양 생태도시 착륙장에 내렸다. 공중에서 다가올 때부터 생태도시가 아름다워 보였는데, 착륙하고 나니 신선한 소금 냄새가 진동하는 바닷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

사티아는 일 때문에 환상적인 명소를 여러 곳 가보긴 했지만, 대서양 생태도시는 직접 올 수 있을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온 터였다. 착륙장과 중앙 침탑 사이에 폭이 넓은 다리가 있었다. 기적이라 불리는 초강력 바다 유리, 듀로비드로로 만든 다리는 햇볕에 반짝였고, 사티아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리로 이동했다. 니란이 일하며 지내는 곳을 살펴보느라 목을 쭉 뽑은 채.

물론 여기에는 니란만 있는 건 아니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학자와 예술가들도 이 생태도시에서 지내며 공동체에 재능을 기부했다. 더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친다는 건 아주 매력적이었다. 이들은 정부나 다국적 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으니 사티아는 구미가 당겼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잠재적 단점도 보이긴 했다. 비슈카르에서 근무하는 사티아는 지나치게 좋은 조건은 사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최소한 침탑은 사티아가 보았던 사진과 똑같았다. 아니, 사진보다 더 나왔다. 우아한 곡선, 외부 가장자리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의 움직임, 정오의 햇살에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듀로비드로...

구조는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뛰어난 엔지니어링 기술은 물론, 모든 곡선과 내력 기둥에는 공동

체 건축가들의 반짝이는 정밀성과 혁신성이 느껴졌다. 침탑과 그 주위로 이동하는 물고기 떼가 연출하는 경관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닷물이 세월과 함께 빚어낸 것만 같았다.

하늘 높이 솟은 침탑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고, 기반은 바다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다. 바닷물은 아주 맑고 푸르러 몰디브의 바다를 연상시켰다. 침탑과 그 주위에 즐비한 인공섬의 옆에는 갖가지 색을 자랑하는 산호와 해초 농장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플랫폼 주위에는 울타리가 없었다. 침탑이나 인공섬 그 어디에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리는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련한 사티아는 건물 끝에서 빛이 약간 굴절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에너지 장막이 쳐져 있음을 깨달았다.

사티아 뒤로 제트 헬리콥터가 날아오르면서 생태도시 관람은 끝이 났다. 사티아는 얼마 동안 얼어붙은 듯이 꼼짝 않고 서서 두 주먹을 꽉 쥐 채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헬기 소리, 바람, 둥글게 묶은 머리에서 흐트러진 머리칼이 얼굴에 세차게 부딪히는 느낌. 모든 게 신경을 긁고 있었던 것이다.

제트 헬리콥터가 자취를 감추자 사티아는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묶은 머리를 풀어 손가락으로 빚어 내렸다. 보통 비즈니스 회의에서는 머리를 틀어 올리는 걸 선호하긴 했지만, 머리칼이 빠져나온 상태라 공격적인 석상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바꾸어야 했다. 안 그래도 머리가 엉망이면 거울도 보기 싫어했는데, 하필 비즈니스 회의, 거기다 한때 절친이었으며 비슈카르 광축가 아카데미에서 룸메이트였던 니란 프룩사마니를 만나는 자리였던 것이다.

정작 니란은 늦었다. 진작 와서 맞이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사티아는 생각했다.

흥미로웠다.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니란을 잘 알던 사티아는 일에 몰두하다 늦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젊었을 때 니란은 사람들에게 산만하고 공상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티아는 니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니란은 당장 관심이 있는 것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사티아는 깊은 대화를 하건 새벽까지 공부를 하건 늘 그런 니란이 감탄스러웠다.

산제이가 비슈카르 소유라고 주장하는 기술을 연구할 때도 그랬다. 그 기술 때문에 사티아는 오늘 여기 온 것이었다.

니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사티아는 허리 옆에 양손을 붙였다.

니란은 제트 헬리콥터 플랫폼으로 이어진 통로를 따라 침착하게 걸어왔다. 새하얀 머리칼이 부드럽게 나부꼈다. 니란의 구릿빛 피부가 햇볕을 받아 빛나는 가운데, 사티아는 니란의 옷을 살펴보았다. 흰색, 핑크색, 옅은 녹색이 섞인 옷에 허리에는 금색 띠를 두른, 일상적이지는 않은 색의 배합이었다.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입었던 유니폼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니란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기품과 자유로움이 있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옷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정반대로, 사티아의 깔끔한 비슈카르 유니폼은 그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사티아!” 니란의 목소리는 사티아가 기억하던 것과 달랐다. “정말 오랜만이네, 친구여. 여기서 보게 되다니.”

“비슈카르에서 내가 온다고 연락 안 했어?”

# 잘 지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티아는 아쉬웠다. 니란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며 불행한 상태였으면 차라리 사티아가 임무를 수행하기가 더 수월했을 테니까.

“누군가를 보낸다고만 했지. 네가 온다는 얘기는 안 했지.”

“실수했나 보네.”

“그러게.”

둘은 1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파악하려는 듯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니란은 더 이상 사티아가 알고 있던 흐느적대는 십 대 청소년이 아니었다. 어깨는 넓어지고, 머리칼은 사티아만큼 길었는데 잘 어울렸다. 강함과 따뜻함이 자신감과 함께 어우러진 인상이었다.

잘 지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티아는 아쉬웠다. 니란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며 불행한 상태였으면 차라리 사티아가 임무를 수행하기가 더 수월했을 테니까.

니란의 시선은 사티아의 머리칼에 머물러 있었다. 한 가닥이 빠져나온 걸 눈치챈 것 같아 사티아는 흠칫 놀랐다. 아카데미에서 함께 지내던 시절, 니란의 머리 스타일을 지적하던 쪽은 항상 사티아였고, 지적을 당한 니란은 머리를 뒤로 쓸어넘기며 긴 한숨과 억지 미소를 짓곤 했다. 이제 사티아의 머리를 본 니란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세월이 지난 사티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티아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빠르게 무시했다. 관계 없는 이야기다.

“흥미로운 이동수단이구나.” 마침내 입을 연 니란이 사티아 뒤쪽에 있던 텅 빈 제트 헬리콥터 착륙장을 향해 고갯짓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린 아주 효율적인 교통 허브를 갖고 있어.”

“비슈카르 일이 급해서.” 사티아는 간단히 답했다. 본래 목적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정보였다. 비슈카르에서 사티아가 물꼬를 트기를 바란다는 것이 나머지 정보였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대리인을 다른 승객들이 우글거리는 기차에 태워 보내지는 않는다.

“제트 헬리콥터는 좀 낭비 같은데.”

“더 추궁할 생각이야, 니란?”

니란은 머뭇거리는 듯했다. 아마도 니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그런지도 몰랐다. 사티아는 과거에 그를 부아라는 별명으로 불렀으니까.

어쩌면 사티아가 니란을 놀리는 데 너무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정식 협상 자리에 개인적인 감정을 들이밀다니. 프로답지 않게, 사티아는 생각했다.

사티아는 억지로 예의를 갖춘 미소를 지었다. “방문 목적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말했듯이 급한 업무라서.”

“이 방문이 끝나면.” 니란이 말했다. “다시 제트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가니?”

“그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헬기가 기다렸을 테지만, 널 섹터가 어제 파리를 침공해서 전 세계가 경계 태세였다. 비슈카르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했고, 오늘 회의가 길어지리라는 건 확실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비슈카르에 전화해. 이 회의는 끝이야.”

수작을 부리는구나. 멋지네.

“원하는 게 있겠지?” 사티아는 겁먹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니란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돌아갈 때는 본토까지 기차를 탔으면 좋겠어.”

비슈카르가 좋아할 이유가 없었고, 사실 사티아도 마찬가지였다. 기차를 타면 사람도 많고 분주한 데다 진이 다 빠지니까. 제트 헬리콥터는 시끄럽긴 하지만 개인 공간이 있었다.

그래도 임무가 더 중요한 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받아들여야 했다.

“너희 기차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직접 보는 것도 재미있겠는데?” 사티아가 대답했다.

니란이 눈썹을 들어올렸다. “설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인 객실의 편안함, 안락함, 사생활 보장이 얼마나 우수한지 말해주려던 참이었거든.”

아.

니란은 사티아를 너무 잘 알았다.

“친절하기도 해라.”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사티아가 말했다. “고마워.”

“천만에.” 니란은 사티아에게 먼저 가라는 시늉을 했다. “먼저 가, 사티아.”

사티아는 통로를 따라 걸어가 침탑의 거대한 광장에 들어섰다. 아주 분주했다. 사티아에게는 너무 분주한 공간이었지만, 거기에는 멋진 사람들, 구조물, 장치 등이 가득했다. 절박함이 불편함을 이겼다.

“그런데 말이야.” 사티아는 무심코 입을 열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모두가 무료로 기술과 노동을 제공했다는 게 사실이야? 외부 자본은 전혀 없이?”

“맞아.” 니란은 종이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로 사티아를 안내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조 중 하나야, 사티아.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역력이 되는 대로 기여해야 하지. 그 노동의 결실은 모두가 누리고.”

사티아는 솔직히 믿기 힘들었다. “그럼 모든 게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솔직히 어려운 일 같은데.”

다시 대화가 끊겼다. 사티아는 거대한 유리 건물 아래로 만족스럽게 헤엄치는 고래 무리에게 정신이 팔렸다가, 니란이 희한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알아차렸다. 니란의 침묵은 불편할 정도로 길었다.

# 너도 날 떠났잖아. 사티아는 말하고 싶었다. 우리 우정을 회복하러 여기 온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네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는 거 알아.”

이유가 있었다. 신뢰는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너도 날 떠났잖아. 사티아는 말하고 싶었다. 우리 우정을 회복하러 여기 온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티아는 과거에 둘 사이의 우정이 왜 그리도 두터웠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티아는 하이데라바드의 빈민가 출신이었고, 니란은 부유한 치앙마이 가문의 아들이었다. 사티아는 체계적인 정확성으로 집중하는 편이었지만, 니란은 사회적이고 임기응변에 능하며 반항적이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둘 모두 아웃사이더였고, 명석했으며, 비슈카르의 가르침을 저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둘 사이에는 *우정이 있었다*. 아카데미에 다니던 시절, 둘이 함께 웃음을 얼마나 참았던가. 복도를 나란히 걸으며 니란이 장황하게 외국으로 떠난 가족 여행 얘기를 할 때면 사티아는 몰입하며 조용히 들었다. 사티아가 개인 프로젝트에 정신이 팔린 니란에게 수업을 빼먹지 말라고 알려준 일도 수도 없이 많았다. 사티아가 사교 춤을 연습할 때면, 니란은 사티아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몇 시간이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묵묵히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그 시절의 기억은 까마득히 멀리 느껴졌다. 둘 모두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오늘 사티아가 맡은 임무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사티아는 사무적인 목소리를 유지했다. “어제 파리에서 있었던 널 섹터 침공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부상자를 치유하고 부서진 도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 사티아는 공손하면서도 호감 가는 미소를 지었다. 비슈카르에서 근무할 때 짓기가 참 어려운 미소였다. “네가 수년 전에 비슈카르에서 연구를 시작했던 생체광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니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비슈카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니, 사티아?”

사티아는 니란에게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 사티아는 가까스로 억지 웃음을 유지했다.

비슈카르에 대한 사티아의 신뢰는 최근 흔들리고 있었다. 사티아는 오랫동안 비슈카르의 중요 프로젝트를 담당할 신뢰할 수 있는 광축가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기업의 뒷처리만 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사티아는 기업의 어두운 면도 보게 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빈민화, 대규모 환경 파괴, 홍수, 기근, 활기찬 열대우림과 야생이 잿빛 황무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니란은 그러한 소문을 접하고 오래전에 비슈카르와 연을 끊었지만, 사티아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신뢰하며 자리를 지켰다.

그 신뢰는 최근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니란에게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우리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자.” 사티아가 침착하게 말했다.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니란도 눈치챘을 것이다. 갑자기 유니폼이 답답해져 사티아는 옷단을 잡아당겼다.

놀랍게도, 니란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티아! 여전히 일에만 집중하는군. 일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여기를 구경부터 좀 하자.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지. 따라와.”

니란은 사티아를 발코니로 안내했다. 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코니는 천천히 침탑을 올라갔다. 개방적인 건물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나의 도시를 보는 것 같았다. 니란은 사티아에게 해양 생물 연구에 사용하는 관람 지점 중 하나를 소개했고,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갤러리와 미술관,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 등을 보여 주었다. 수경재배 정원에서는 희귀 품종을 개발 및 개량하고 있음을 특히 강조했다. 침탑은 주민 모두의 재능과 기부를 통해 만들 수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침탑을 건설할 때는 깨끗한 재활용 에너지를 기반으로, 최신 기술을 이용한 핵심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모두 힘을 합쳐, 필수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서비스에는 청정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사티아는 뒷집을 지고 걸었다. 손을 가만히 두기 위해 깍지를 낀 채로. 거만한 매니저와 함께 꼼짝하게도 지루한 건물을 둘러본 경험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도 과장할 필요 없이 흥미로웠다.

마침내 발코니가 듀로비드로 문이 많은 곳에서 멈추었다. 니란이 손을 휘젓자 문이 열리면서 흥미로운 공간이 드러났다. 반짝이는 주 구조물은 다른 생태도시 구조물과 다를 게 없었지만, 선은 아주 깔끔하고 예술적이었다. 가구 역시 깔끔하고 미니멀했는데, 안락함과 기능성 모두를 갖추고 있었다. 개인 물품은 개방적이고 손이 닿기 쉬운 선반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거주 공간임이 분명했다.

“이건 뭐지?” 생태도시에는 볼거리가 안 그래도 많았는데, 니란이 하필 거주 공간을 보여주는 이유가 궁금했다.

“너무 많은 국가들이 옴닉의 평등 사회에 대해 침묵하거나 대놓고 적대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그래서 더 많은 옴닉 난민이 생태도시로 몰려오고 있지.”

“그럼 여기가 옴닉이 지내는 곳이야?”

“그래. 일상 업무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태도시에 기여해 만든 공간이야. 주거지 설계를 만든 옴닉들이 좀 있길래 도와줬어.” 니란은 큼직하고 포근한 공간의 반대편에 있던 문들을 가리켰다. “저 문 너머에 개인 공간이 완성된 참이야. 여태까지 옴닉 약 36명 정도가 도착했지. 아직 뭐 끝난 게 없어서 조금 미니멀하지? 거실과 레저 공간 등 몇 개 구역으로 나눌 생각이야. 생태도시 안에 있는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즐거움, 안락함, 자기계발을 최우선으로 설계했는데, 이쪽 공간은 옴닉 주민을 위한 식당으로 쓰려고 해.”

사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사티아는 수라바사에서 젠야타와 다른 옴닉들과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옴닉이 경험하고 인지하는 방식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도. 건물에 옴닉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옴닉에게 적당하지 않거나 성급히 보강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공간은 처음부터 옴닉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설계한



# 그들은 옴닉 사태 전에는 빈민이었던 학생을 완성시켰다며 우등생을 자랑하는 것뿐, 사티아는 필사적으로 지시를 따르느라 연설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아주 드문 사례였다. 인간이 처음부터 옴닉의 필요를 고려한다는 것은 좋게 말해도 특이한 일이었다.

사티아의 자폐와는 빈말로라도 같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특정 부분에는 공감할 수 있었다. 이제 비슈카르에서 꽤나 고위직에 오른 사티아는 거주 공간과 개인 루틴에 약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아카데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사티아는 아카데미 시절, 학교에서 급식의 품질과 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지, 매 끼니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생생히 기억했다. 그러나 사티아는 무슨 메뉴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걸어 들어가던 게 고육이었다. 조명에서는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거슬리는 고주파가 들려왔다. 매번 바뀌는 식단도, 적당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려 있지 않는 복도의 그림도 신경에 거슬렸다. 선생님들은 사티아에게 눈을 보면서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아카데미에서 사티아더러 학생 대표로 발표하라며 졸업식 단상에 앉아있도록 했을 때, 연설자였던 비슈카르 사장은 창립자인 바트 박사에 대해 연설했다. 그것은 비슈카르를 위한 것이지 사티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옴닉 사태 전에는 빈민이었던 학생을 완성시켰다며 우등생을 자랑하는 것뿐, 사티아는 필사적으로 지시를 따르느라 연설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다리는 점잖게 꼬고 있어라. 발로 탁탁 소리를 내지 마라. 청중을 보고 미소 짓고, 조명 때문에 보기 힘들겠지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라.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뒀라... 미성숙하거나, 산만해 보이거나, 건방지거나, 이상해 보이거나...*

사티아의 연설은 나무랄 데 없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일주일간은 침대에서 지내야 했다. 평소라면 니란이 사티아가 아프다며 얘기해 줬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

니란은 졸업식을 치르기 한참 전에 떠났던 것이다.

사티아는 과거의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현재 직면한 임무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니란이 말을 이었다. “옴닉이 설계한 건축 디자인은 아직 초기 단계긴 해.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인간 중심의 지식을 개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초대된 건 영광이 아닐 수 없어. 특히 고통 받은 옴닉 난민을 위한 거니까 가능하면...”

“편안해야 한다고?” 사티아가 문장을 완성해 주었다.

“음, 아니. 편안하다는 건 뭔가 부족해. 내 집처럼 느꼈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옴닉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옴닉이 손님처럼 환경에 자신을 맞추고 적응할 필요는 없었으면 해.” 니란은 홀을 바라봤다. 이 공간은 아직

미완성 상태였지만 니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념에 찬 눈으로 굽어보고 있었다. 사티아는 그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 자부심이었다.

사티아는 누군가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자부심 하나는 확실히 감지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산제이나 다른 비슈카르 지도자에게서 느껴본 것과는 다른 자부심이었다.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었던 것이다. 니란은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 경화광 구조물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사티아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그렇지도 모르지.” 니란이 대답했다. “네 재능을 기부해준다면 정말 좋을 텐데.”

사티아는 이미 여러 가능성을 접쳐보고 있었지만, 생태도시에는 도움을 줄 마음이 없었다. 사티아는 대화 주제를 바꾸기로 했다. “그럼 계속 갈까?”

“좋으실 대로.”

발코니가 위로 움직였다. 발랄하고 부지런한 아이들이 교사의 감시 아래 놓고 웃는 정원이 스쳤다. 사티아는 나이와 성별을 떠나,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 사람을 얼마 만에 본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더 과거로, 아카데미에 다니던 아이 시절로 돌아가야 했다. 아카데미는 단점도 있었지만 좋았던 점도 있었다. 즐거웠던 시절. 지금 옆에 서있는 친구와 함께했던 시절이었다.

“모두 만족하는 듯하군.” 니란과의 추억을 머릿속에서 떨치려는 듯 사티아가 말했다.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뿐,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니야. 멈추고 있다면 대화를 나누려는 것이고. 다들 편안해 보여.”

“사람들은 대부분 지낼 곳을 찾으러 생태도시에 오지.” 니란이 말했다. “여긴 두려워할 것도,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연기할 필요도 없어.”

아주 멋진 삶이었다.

사티아는 씩씩함을 떨쳐버리느라 답을 하지 않았다.

니란이 다가왔다. “사티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말해 줘.”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었다.

표정을 숨기는 데 실패했을지도, 니란이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사티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니란은 자신이 말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비슈카르가 내키지 않는 일을 강요하고 있다면...” 니란이 주저했다. “너는 비슈카르에게 빚진 게 없으니 거기 있을 필요 없어.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해 줘.”

한때 소중했던 친구의 말이 귓가에 울리며 사티아 안에서 무언가를 부숴 버렸다.

“왜?”

니란이 눈썹을 찌푸렸다.

“왜 떠난 거야?” 사티아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세월이 묻어나고 있었다. “우린 친구였잖아. 함께 아카데미에서 자란 친구. 너를 누구보다도 신뢰했는데. 회사에서 나한테 너랑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도, 난 거기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난 다 알았잖아! 대체 왜 비슈카르 기술을 가지고 도망친 거야?”

“내 기술이지. 내가 개발한 기술.”

# 회사 편. 회사 소속. 정말 그런가? 니란에게 그렇다고 말은 했지만 그 단호함은 예전 같지 않았다.

“회사가 지원한 교육과 자원을 활용했으니 그 기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사티아가 지적했다. 이걸 사티아가 생태도시로 출발하기 전에 외워 두었던 회사의 대본이었다.

“비슈카르의 교육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난 내 길을 간 것뿐이야. 난 회사 소유가 아냐. 내 마음도, 내 기술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했잖아.”

니란은 처음으로 놀란 기색이었다. “이익? 회사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니란은 생태도시를 보라는 듯 두 팔을 넓게 벌렸다.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잖아, 사티아. 여기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게 있는 것 같아 보여? 비슈카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티아는 그 말을 꺼내자마자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사실, 산제이가 말한 니란이 떠난 이유를 온전히 믿은 적은 없었다. 믿는 편이 마음을 다스리기 훨씬 쉬웠을 텐데.

그렇다고 사티아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달라지지 않았다. “비슈카르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 네가 떠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지. 가용 자원으로...”

“회사 업적을 부정하려는 건 아닌데, 이익과 영향력을 위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건 너도 알잖아?”

“난 네 비평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하려고 온 거야.”

“네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비평이야.”

“내가 그 회사 소속이잖아!”

니란은 팔짱을 끼고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눈길로 사티아를 바라봤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걸 믿겠어?”

사티아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화가 나 뒷걸음질을 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해내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드러내지 않고, 임무에 집중하면서 산제이가 말한 그대로 했는데.

비슈카르의 완벽한 직원 이미지를 유지하는 건 언제나 힘들긴 했지만, 니란 앞에 선 지금이 가장 힘들었다. 사티아는 니란을 설득하는 것도,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도, 논쟁하는 것도, 마음을 숨기는 것도 싫었다. 그저 옛 친구와의 관계를 예전처럼 돌리고 싶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니란.” 사티아의 목소리는 힘이 빠진 채 지쳐 있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그래, 하지만 네가 완전히 비슈카르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회사 편. 회사 소속. 정말 그런가? 니란에게 그렇다고 말은 했지만 그 단호함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언젠가 선택해야 할 날이 오면 사티아는 비슈카르의 업적과 비리를 저울질해야 할 것이다. 사티아는 대의를 믿었다. 분명 어떤 기준도 있긴 할 테지만...

아직 그 기준을 그을 준비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니란은 오래전에 이미 그 선을 그은 것 같았다. 사티아는 그의 표정을 읽지 못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비슈카르에 돌아올 생각은 없는 거지?”

“없어.” 니란이 짧게 말했다.

사티아가 비꼬듯 미소를 지었다. “여태까지 안부 인사에 다른 얘기를 하느라 시간만 낭비했네. 넌 애초에 내 부탁을 들어줄 생각도 없었는데 말이야.” 사티아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껴, 대화를 더 나누기가 싫어졌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다. 이 임무는 사티아 대 니란이 아닌, 아니 비슈카르 대 공동체라는 구도였기 때문이다. “나는 위험에 처한 인간과 움닉이 네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 온 거야.”

“이해해.” 니란이 말했다. “정말이야. 하지만 지금 내 기술을 비슈카르에 넘긴다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재산권 법과 라이선스 비용 때문에 금고 안에 보관될까? 비슈카르는 부유한 자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 사티아. 너도 알잖아? 그러니 내 기술도 그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지.” 니란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의견을 피력했다. “나는 파리든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대한 도움 거야. 너희 회사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럼 왜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었겠지. 비슈카르에서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냈다면 말이야.” 니란은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회사에서 보낸 사람은 바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너를 보고 나니까... 너와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잖아, 사티아. 연락 한 번 못 들은 소중한 친구를 어떻게 바로 돌려보낼 수 있겠어? 내가 지은 곳을 보여주고 싶었어.”

“시간 낭비했네.”

“시간 낭비한 것 같아?” 니란이 아카데미 시절처럼 고개를 틀었다. “정말?”

사티아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부상하는 발코니가 움직임을 멈추었고, 둘은 세련되고 부산한 교통 허브에 진입했다.

“기차 태워 보내려는 거구나.” 사티아가 말했다.

“그래. 네 시간을 더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상처 받은 목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표정에서는 읽어낼 수 없었다.

사티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둘의 대화는 어떤 소리에 예상치 못하게 끊기고 말았다.

비명이었다.

사티아는 몸을 돌려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살펴보았다. 런던에서 막 도착한 열차에서 쏟아져 나온 승객들이 역사에 가득했다. 일부는 넘어지고, 플랫폼에 구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무슨...?” 니란의 눈이 커졌다.

승객들은 기차에서 도망치며 비명을 질러댔다. 교통 허브는 공포와 혼돈의 도가니였다.

“무슨 일이지?” 사티아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기차로 달려갔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는 확실했다. 도와야 했다.

사티아는 최대한 도울 생각이었다.

장갑을 낀 사티아는 기차에서 추락한 사람들에게 경화광 방어막을 던졌고, 사람들 뒤에서 쏟아져 나온 에너지 투사체를 막아냈다. 일부 승객은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람들 대피시켜!” 사티아는 니란에게 외쳤지만 소음 때문에 목소리가 묻혔다. 어깨너머로 살펴보니 니란은 보이지 않았다.

지원을 요청하러 갔을지도. 상관없었다. 집중해야 했다.

기차로 다가가자 가까운 문에 처음 보는 형체 하나가 서 있었다. 반짝이는 금속에 각진 외형. 움닉 승객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너무 차분했고, 눈 너머에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팔에는... 손이 아니라 매끈한 에너지 무기가 붙어 있었다. 최근 뉴스에서 봤던 그런 무기가.

승객이 아니었다. 승객들을 달아나게 만든 것이었다.

“널 섹터.” 사티아가 중얼거렸다. 확실했다. 산제이의 말대로, 어제 파리 침공은 다음 재앙의 전조였던 것이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비집고 찢어지는 듯한 사이렌이 울렸다.

생태도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역사에 있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거주민 및 방문객 여러분, 비상 대처 계획 A에 따라 각 거주 지구에 있는 대피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요원들은 교통 허브로 집결 바랍니다.

기차에서 널 섹터 유닛이 모습을 드러냈다. 근처에 있던 승객 두 명이 나가떨어졌다.

같은 기차의 멀리 떨어진 차량에서 유닛이 더 튀어나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다. 사티아는 보호막을 더 던져, 간신히 노인 부부를 보호하고 부상당한 움닉이 탈출할 시간을 벌었다. 군중은 널 섹터 유닛이 나올까 봐 기차 문 주위에서 거리를 벌렸고, 문 주위에는 부상 당한 승객과 도우려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다.

그중 니란이 있었다.

하얀 머리와 생체광 빛을 발견한 사티아는 니란을 알아봤다. 니란은 도움을 받기 위해 간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있었다.

니란을 알아본 사티아는 놀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놀라고 있었다. 눈앞에는 과거에 알고 있던 비슈카르 아카데미의 동창생이 아니라 *니란*이 있었던 것이다. 니란은 사티아가 사람들을 도우라고 외치기도 전에 내려가 부상자를 살피고 있었다.

아이 둘이 정신을 잃은 성인을 굽어보는 옆에서 거대한 잎이 펼쳐졌다. 아이들은 상기된 얼굴로 울고 있었다. 잎새가 아니라 꽃잎이었다. 연꽃잎 중 하나였다. 생체광 꽃이 열린 분홍색으로 빛나며 가족을 들어올린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니란의 능력을 사티아는 홀린 듯 바라보았다. 전에도 생체광을 사용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때는 아카데미 시절이라 아직 꽃의 씨앗에 불과했던 것이다. 모양도 불완전했으며, 빛도 약했고, 불안하게 깜빡였다. 자라날 꽃잎을 짐작만 할 수 있으며, 가지가 아닌 꽃눈이었달까.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성인이 된 니란은 완전히 피어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 사티아는 전쟁이 아니라 춤을 선호했고, 전투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사티아는 다시 로봇들을 바라봤다. 니란이 부상자들을 보호하는 동안 사티아는 공격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사티아는 전쟁이 아니라 춤을 선호했고, 전투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을 힘없고 두려운 존재로 살았던 사티아는 성인이 된 후, 비슈카르 전투 훈련을 받고 답을 찾았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경화광을 활용하면 광축 연구보다 전투가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파괴는 항상 창조보다 쉬웠다.

사티아는 차가운 표정으로 몸을 돌려 거대 로봇을 마주한 후, 장갑으로 광자 발사기를 만들어냈다.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냐.”

적 유닛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티아를 지나쳐갔다. 사티아 뒤에서 겁에 질린 옴닉의 모습이 널 섹터의 반짝이는 금속 해골에 반사되었다. 옴닉은 기둥 뒤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사티아의 광자 발사기가 널 섹터 유닛의 상체에 큰 구멍을 냈다.

“도망치세요.” 사티아는 뒤에 숨어있던 옴닉에게 말했고, 주위 승객들도 허둥지둥 도망쳤다.

로봇 유닛은 생각했던 것보다 처치하기 쉬웠다. 사티아와 니란에게 승산이 있을지도 몰랐다.

기차가 철로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소리에 사티아는 획 뒤로 돌았다. 찌그러지고 창은 모두 깨진 차량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기차 걸면에는 곤충 떼처럼 로봇 유닛이 붙어 있었는데, 일부는 여객 열차로 이동하고 있었고 일부는 역내에 있던 겁먹은 군중을 향해 도약했다.

이후 몇 분은 광자 폭발, 레이저, 전자 장비 타는 냄새, 찌렁찌렁한 비명소리, 선혈과 공포로 아비규환이었다. 사티아는 오로지 다음 공격 대상에만 집중한 채 가장 효율적으로 로봇을 제거해 나갔다.

생전 처음 듣는 금속성 으르렁거림이 사티아의 집중력을 흐뜨렸다. 움찔한 사티아는 새로 도착한 기차의 화물칸 하나가 부풀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내부에 거대한 무언가가 벽과 천장을 누르는 듯, 금속 몸체가 뒤틀리고 변형되어 갔다. 어떤 곳은 금속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져 나갔고, 어떤 곳은 역사에 준비한 적들이 무기로 공격하면서 직선으로 균열이 생겼다.

화물칸 지붕이 흘러덩 뒤로 날아가 벽을 맞고 구겨졌다. 열차 안에는 뚫린 지붕 위로 코뿔소 모양의 유닛이 드디어 원래 키로 직립해 있었다. 사티아가 타고 온 제트 헬리콥터 크기에 버금갈 정도였다.

놈이 발을 옮기자 차량 벽이 알루미늄 호일처럼 구겨졌다.

“사티아! 숨어!” 역사 저편에서 니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니란은 한 무리의 옴닉이 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체광 냉쿨을 공중에 쏟아내 움직이고 있었다.

사티아는 다시 기계 야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거대 야수는 니란, 그리고 도망치는 군중을 향해 플랫폼으로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생태도시 보안 인력이 무기를 발사했지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거대 기계의 외피를 맞고 튕겨나갔다. 움직임을 보아하니 거대 야수는 더욱 힘을 들여 전진하는 것 같았다... 크기가 엄청나니 약점도 분명 있을 터였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크기의 무언가를 찾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다. 거대 기계 주위에 아무도 없는 이때 빨리 대응해야 했다. 사티아는 빠르게 팔을 움직여 옆으로 공격을 피한 후 정확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마치 서명을 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거대 야수 몇 미터 위에 순간이동기가 소환된 후 펼쳐졌고, 야수의 금속 다리가 암석 재질 천장을 뚫자 차원문이 더욱 커졌다. 청색 빛이 지름 10미터 이상 늘어났다.

사티아는 옆에 있던 철로에도 순간이동기 유닛을 던졌다. 전투 로봇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망가진 앞쪽 객차 아래였다.

객차 전면이 차원문으로 빨려들어 움직이면서 뒤틀리는 소리를 냈다. 거대 야수 위에 있던 차원문에는 빨려든 객차의 일부가 보였다.

객차는 잠시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차원문에 끼인 듯했지만...

금속이 굽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움직였다. 객차는 차원문이 닫히기 직전에 통과해 코뿔소 유닛 위로 처박혔다. 웅장한 천둥 소리가 역사를 뒤흔들었고, 못이 날아다니고 금속이 종잇장처럼 뒤틀려 찢어졌다. 야수 기계는 암석 플랫폼에 처박히며 납작해졌다.

야수를 완전히 제압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사티아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했다. 광자 발사기를 꺼내는 사티아는 야수 로봇의 금속 해골 잔해를 겨누었다. 야수의 머리는 뒤틀리고 찌그러진 열차 아래 깔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생태도시 보안 인력도 야수 주위에 모여들었다. 잘 훈련이 된 듯했다. 일부는 야수 기계의 층을 이룬 장갑 사이로 정확히 사격했고, 일부는 폭발물을 설치한 후 재빨리 떨어졌다.

거대 야수는 한두 번 경련하다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다.

사티아는 숨을 헐떡이며 현장을 살펴보았다. 민간인들은 대부분 역사에서 대피한 상태였고, 보안 인력은 나머지 널 섹터 로봇을 처리하는 중이었다. 니란은 부상자 무리 옆에 웅크리고 앉아 상처 부위 위로 손을 움직였다. 눈은 사티아에게 고정된 채.

모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다. 일부는 인간. 일부는 옴닉이었다.

이상했다. 옴닉 시체는 대부분 외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가시가 돋은 장치가 얼굴을 덮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이상한 상황이었다.

*저건 대체 뭐지...?*

사티아가 발견한 수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공격하던 널 섹터 로봇 숫자보다 널 섹터 로봇 잔해가 더 적어 보였던 것이다.

사티아는 주위를 돌며 로봇 잔해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교통 허브 전역에 있던 전쟁 로봇 잔해는 30기

# 역사 저편에 있는 니란과 눈이 마주치긴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당장 움직여야 했다.

가 채 되지 않았다. 기차로 역에 도착한 로봇보다 훨씬 적은 수였다.

“대체 어디에...?” 사티아는 혼잣말로 중얼댔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다.

사티아가 상대했던 첫 번째 적은 사티아가 아니라 뒤에 있던 옴닉을 우선 공격했다. 거기에 쓰러진 옴닉의 머리에 있는 장치를 보면, 널 섹터의 목표는 옴닉인 게 틀림없었다.

또한, 생태도시에 있는 옴닉은 대부분 이곳 교통 허브가 아니라 아래쪽 거주 구역에 있었다. 대피 방송에 따라 거주 지역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사티아는 보안 병력에게 명령을 내릴까 하다가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 그만두었다.

역사 저편에 있는 니란과 눈이 마주치긴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당장 움직여야 했다.

사티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니란이 자신을 보았으니 이해해주기를 믿는 것뿐이었다.

사티아는 니란과 왔던 길을 거슬러 가며 지름길을 찾았다. 어떤 곳에서는 돌출부로 뛰어내려 대피하는 사람들을 피해 이동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단순한 순간이동기를 생성하여 거대한 입구 광장을 한번에 가로질렀다.

어디에서나 보안 인력이 널 섹터 유닛들과 교전 중이었고, 어디에나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대부분 옴닉이었고, 머리에 아까 본 이상한 장치가 붙어 있었다. 사티아는 잇새로 뱀처럼 숨을 내뿔었다. 돕고 싶었지만 적 유닛이 더 깊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의 대혼란. 거대한 코뿔소 유닛... 모든 것은 진짜 목표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시간 끌기였다. 사티아는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자책했다.

사티아는 달리면서 장갑을 눌러 순간이동기를 만들어냈다. 현재 위치에서 니란이 보여준 옴닉 거주지까지 바로 이동하기 위함이었다. 차원문 안으로 뛰어든 사티아의 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지만, 오랜 전투로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의 특기는 예술이지 전력질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뛰다 보니 체력을 상당히 소모한 것이다.

세계가 빠르게 스쳐갔다. 차원문 밖으로 사티아는 튀어나왔고, 웅크리며 착지했다.

2미터 전방에 최소 12기는 되어 보이는 전쟁 로봇이 듀로비드로 문에 사격을 해대고 있었다. 로봇들의 속사에 유리가 흔들렸다. 문 자체는 버티고 있었지만, 그 주위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아직 널 섹터가 수십 명의 옴닉이 숨어 있는 개인 구역은 커녕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다행이었다.



사티아는 놈들이 더 나아가게 둘 생각이 없었다. 재빨리 손가락으로 공기를 당기듯 두 손을 뺐은 사티아가 보호막을 자아냈다. 푸르게 빛나는 보호막이 널 섹터의 공격으로부터 손상된 벽을 보호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사티아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잠시라도 집중이 흐트러지면 주위에 있던 널 섹터 로봇의 일제 공격에 보호막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 쉽게 상황을 타개할 방법도 있었다. 널 섹터 로봇 자체는 그리 튼튼하지 않으니, 직접 공격한다면 놈들이 움닉에 손도 대기 전에 모두 제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보호막을 쓰지 못하고, 그러면 벽이...

그런 위험은 감수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다.

사티아는 원래 계획대로 보호막을 유지했다. 벽에 있는 균열을 수리하자마자 다른 균열이 생겨났다. 보호막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보강하고, 틈새를 모두 메우고, 더 보강할 곳이 없는지 약한 부위를 찾아봤다.

괴를 낸 일부 로봇 유닛이 돌아서서 사티아를 공격했고, 몸을 돌린 사티아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재빨리 만들어냈다. 방어막은 공격을 대부분 막아냈지만 다 막아내기에는 부족했다. 공격이 다리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보호막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했던 사티아는 상처에 흔들릴 여력이 없었다. 조금만 더...

“사티아!”

마침내 니란이 나타났다.

니란, 아니, 부아의 목소리는 너무도 반가웠다. 생체광 연꽃잎이 엘리베이터 위치로 부아를 태우고 내려왔다.

“늦었잖아.” 간신히 버티던 사티아가 말했다.

부아가 지면으로 내려오자 연꽃이 등 뒤에서 사라졌다. “의외인 일도 아니잖아.”

사티아는 고통을 참아내며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중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한가로이 이야기 나눌 시간은 끝났다.

부아는 빙글 돌면서 전진하여 장갑을 낀 손을 뺐은 후, 허공에서 생체광 가시를 수없이 쏘아보냈다. 사티아의 오른쪽에 멈춘 그는 가시를 목표로 퍼부었다. 금속이 찢어졌다. 섬광이 튀었다.

널 섹터 유닛이 사티아의 보호막에서 눈을 떴고 부아와 사티아를 향했다. 사티아는 방어막을 거두지도, 정신 집중을 멈추지도 않았지만, 니란의 출현에 안도해 한 가지 일을 더 할 여력이 생겼다. 가까운 로봇 두 기의 등 뒤에 순간이동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부아는 친구의 의도를 이해하고는 전쟁 로봇을 향해 가시를 발사해 놈들을 차원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차원문을 통과한 로봇들은 첩탐 외부 수십 미터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여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같은 재주는 부릴 수 없었다. 여기까지 이동하고, 고통 허브에서 거대한 순간이동기를 만들어내느라 장갑에 무리가 갔기 때문이다.

사티아는 천장에 감시 포탑 몇 개를 던졌고, 포탑이 부아 등 뒤에서 접근해오던 로봇을 바로 손상시켰다.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피한 사티아는 몸을 돌려 광자 발사기로 공격자를 제거했다. 사티아 등 뒤에서 부아의 가시가 날아와 머리가 날렸지만, 단 한 개도 사티아의 몸에 박히지 않았다. 사티아는 우아함과 투지

로 춤추듯 몸을 회전시켜 가시를 피하며 전투를 이어갔다. 아래에서 드론이 더 올라왔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벽 너머에 있는 옴닉을 노리는 로봇 유닛이 가끔 사티아의 방어막을 공격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사티아는 공격을 멈추고 벽을 보호하는 데 온 정신을 집중했고, 부아가 사티아를 지켰다.

마지막 남은 로봇이 전기 불꽃을 튀기며 금속 덩어리가 되어 쓰러지고 나서야 사티아는 보호막을 거두었다. 푸른빛을 발하던 보호막은 비누 방울 터지듯 퐁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사티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쓰러지려던 사티아는 간신히 근처 벽을 붙잡고 일어났다. 사티아는 몇 층 위에 있던 큰 광장을 흘끔 올려다봤다. 전투를 치렀는지 연기가 자욱했지만, 무기의 섬광은 더 보이지 않았다. 새로 널 섹터 유닛이 도착한 것 같지는 않았다.

“사티아, 피가 나.” 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상처 좀 보자.”

“괜찮아.” 하지만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다. “아. 좀 다치긴 했네. 아무렴 어때. 적은 이제 없는 거지?”

부아가 경화광 이어폰을 소환해 보안 채널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스캔 결과 그래. 영공도 깨끗해. 침공 당한 다른 도시에서 전쟁 로봇이 온 것 같아. 보안 병력과 의무병이 교통 허브를 봉쇄한 채 상황을 수습 중이야. 앉아, 어서.” 부아는 전투 현장에서 사티아를 데리고 나와, 사티아가 방어 중이던 반쯤 건설된 레저 공간에 앉혔다.

“널 섹터가 옴닉들에게 무슨 장치를 이식하고 있었어...”

부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신경 억제기 같은 거야. 영향을 받은 이들이 걱정이군... 그래도 생태도시 최고의 연구진이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부아는 부드럽게 사티아의 유니폼 바지를 걷어 올려 종아리에 난 깊은 화상을 드러냈다. “잠시만 쉬고 있어, 사티아. 지금은 쉬어야 해. 치료가 쉽지 않을 거야. 심각한 상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긴 해.” 사티아가 인정했다.

부아는 한 손으로는 사티아의 상처를 살피며 다른 손은 천천히 공중을 휘저었다. 사티아는 손의 움직임에 몰입한 나머지, 지면에서 열게 생체광의 형상이 빛나고 있는 것을 못 볼 뻔했다. 묘목 모양 생체광에서 가지가 돌아나더니, 중심부가 몽환적으로 빛을 발하며 하늘로 솟아났다.

“아름다워.”

“고마워.” 부아가 말했다.

사티아는 자신도 모르게 큰소리로 감탄사를 뱉어낸 것이었다.

“사티아...” 나무를 키워내던 부아가 입을 열었다. “왜 그랬어?”

“무슨 말이야?”

“보호막을 유지하는 대신 로봇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교통 허브에서 활약하는 걸 보니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난민들...”

“드론과 옴닉 난민 주거지 사이에는 최소한 두 개의 차단막이 존재해. 그 문이 뚫렸더라도 드론을 제거할 시간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도 싸워야 했을 거야.” 사티아는 주위를

# 정밀함, 배려, 그리고 따뜻함이. 보금자리를 잃었거나, 애초에 보금자리란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 부아는 자신의 업적을 자부할 만했다.

둘러봤다. 아직 건설 중이었지만, 많은 애정과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놀라운 곳이었다. 정밀함, 배려, 그리고 따뜻함. 보금자리를 잃었거나, 애초에 보금자리란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 부아는 자신의 업적을 자부할 만했다. “이곳은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망가지면 안 돼.”

“네가 위험했잖아.”

“잠시 동안이었지. 네가 올 줄 알았어.”

부아는 얼마간 말이 없었다. “그럼 나를 많이 믿어준 거구나.”

“결국엔 잘 풀렸잖아, 안 그래?”

“고마워. 날 믿어 주고, 여기서 싸워 줘서.” 부아는 주위 공간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티아는 부아와 눈을 맞추기 힘들어, 대신 생체광을 쳐다봤다. 나무는 어느새 천장까지 자라 있었다. 잔잔한 빛이 갑자기 밝아지고, 한 번 맥박 치더니 따뜻한 파동이 사티아의 살갓에 퍼졌다. 경외감에 휩싸인 사티아가 말없이 다리 상처를 관찰하는 가운데, 화상을 입은 피부에 새 살이 돌아났다.

사티아는 부아의 생체광을 처음 봤던 순간부터 발전을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생체광이 만들어낸 모양 자체도 예술적이었지만 실제 잠재력도 무한해 보였다. 부아가 착용하고 있던 흑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장갑은 비슈카르 제품과는 달랐지만, 마치 부아의 손인 것처럼 확장되어 빛의 물결을 발산하고 있었다.

부아가 자신의 기술을 치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부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리 고귀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테니까.

비슈카르가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티아는 회사가 부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많은 선행을 했을 것이란 것을 알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돈을 벌 기회니까.

“네가 도착했을 때 늦게 나온 이유는.” 부아가 천천히 말했다. “비슈카르가 널 보낸 걸 알았기 때문이야. 잠시 마음을 먹어야 했어.”

“내가 제트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걸 본 거야?”

“응.”

“영망이 된 내 머리도?”

“그렇게 멋진 새 등지는 처음 봤어, 사티아.” 부아가 단언했다.

“다행이네.” 사티아가 답했다.

전투를 치른 후인 지금도 그때 못지않게 머리가 영망이었다. 머리만 그런 게 아니었다. 사티아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부아 앞이라서 그래도 좀 나왔다.

“네가 온 걸 보고 놀랐어. 네가 생태도시를 구경하러 왔으면 하긴 했지만, 비슈카르 제트 헬리콥터를 타고 비슈카르 유니폼을 입은 채 올 줄은 몰랐지.”

사티아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널 색터 로봇의 유압액이 잔뜩 튀어 있는 데다, 백색과 보라색으로 이루어진 비슈카르 유니폼이 피부에 닿는 느낌도 좋지 않았다. 촉감도 그랬지만 이음새 부분이 항상 가려왔는데 이제는 전투로 뜯긴 부분까지 가려왔다.

“이 유니폼, 정말 싫어.” 사티아가 말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

“그래?” 어느새 생체광 나무가 사라져 있었다. 부아는 사티아의 다리에 새로 돋은 피부 위 허공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피부 위로 작은 연꽃이 피어나자 사티아는 아플까 봐 몸을 움츠렸지만, 생체광에서 느껴지는 건 친구 부아에게서 느껴지던 온기와 편안함이었다.

“나는 솔직히 드레스가 좋아.” 사티아가 말했다. “비슈카르에 입사하기 전에 예전에 살던 곳 양장점 재단사한테 맞춘 거야. 춤을 추든, 뭘 만들어내든, 싸우든, 내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지. 드레스도 사티아의 일부야. 유니폼은 절대 내 일부가 될 수 없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가끔은.” 사티아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해 말했다. “피부가 쏠리고, 가렵고, 갑갑한 그런 모든 불편함을 느끼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닫게 돼. 그러면 얼굴을 들고 일할 수 있어.”

제대로 표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부아가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보아 이해한 듯 보였다.

유니폼이 사티아의 일부가 아니듯, 비슈카르에서 일하는 것도 그랬다. 그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할 말을 적고, 연습하고, 거짓 웃음을 짓고, 예의 바른 척하고. 비슈카르는 매번 물질적, 정신적 불편함의 한계를 경험하게 했지만, 결국엔...

“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사티아는 헤어진 소매를 당겼다. “지치고, 힘들고, 완벽함과 거리가 멀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내가 도운 사람들을 보고 내가 만든 건축물을 보면... 보람을 느껴.”

“의식적으로 타협한 거지.” 부아가 말했다.

“응.”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네. 나는 네가 남들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줄 알고 걱정했거든. 변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어. 뛰어난 사람들은 그만큼 적응하기 위해 압박을 받기 마련이니까.”

사티아의 입술에 미소가 묻어났다. “난 압박은 잘 받지 않아.”

“그런 것 같네.” 부아가 말했다. “그래서 기뻐. 나는 네 예전 모습이 좋거든.”

사티아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전투 중에도 부아를 믿었으니, 이성적으로 보면 부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사티아는 이성 빼면 시체였다.

“난 비슈카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슨 수작을 벌이는지는 상관 안 해.” 사티아가 털어놓았다. “그리고 회사가 날 속인 것도 알고. *하지만*.” 사티아는 부아가 끼어들기 전에 말을 이었다. “내가 퇴사해서 회사에 맞서게 되면, 나는 뭐가 되지? 회사의 적이 되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회사와 싸우느라 힘을 낭비하게 돼. 비슈카르가 주는 일을 통해 내가 개인적으로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귀중한 인적 자원이야. 나는 회사 내부에서 그런 인적 자원을 더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지.”

사티아의 말을 생각해보던 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를 위해 비슈카르가 네 지침을 수용했으면 좋겠네.”

사티아는 친구의 손을 잠깐 동안 꼭 잡았다.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친구야.”

“아직도 나를 친구로 대해줘서 좋네.” 부아가 잠시 침묵했다. “제트 헬리콥터는 다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교통 허브는 당분간 쓸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만 비슈카르에 빨리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데. 너는 어때?”

부아가 활짝 웃었다. “지금 생태도시에 일손이 달리는데 도와준다면 환영이지.”

몇 시간 동안 중노동이 이어졌지만 친구와 함께 있던 사티아에게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사티아가 북적대는 의료 구역을 관리하는 사이, 부아는 심각한 부상자를 추려 치유했고, 그 후에는 둘이 힘을 합해 적로봇이 망가뜨린 시설을 최대한 수리했다. 공동체의 보안 관리자 한 사람이 합류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생태도시의 보안 수칙 관련 조언을 구하고, 옴닉에 부착한 널 섹터 장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일을 마친 사티아와 부아는 생태도시 정원을 굽어보는 식당의 외딴 구석으로 가서 비슈카르의 제트 헬리콥터를 기다렸다. 지나간 하루를 끝내는 짧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둘은 부아의 프로젝트, 수라바사에서 지냈던 사티아의 경험 등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어렸을 적 추억을 얘기하며 웃기도 했다.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카데미 교사들과 함께 엄격한 아카데미를 떠나, 방갈로르의 옛 울수르 호수 바닥에서 경화광을 연습하기 위해 현장 학습을 떠난 적이 있었다. 둘은 여느 때처럼 짝을 지었고, 니란의 우아함과 예술 감각은 사티아의 정밀하고 실용적인 구조물과 잘 어우러졌다. 기분이 좋았던 니란은 사티아가 동급생들 앞에서 크게 웃게 만들었는데, 사티아는 놀라면서도 좋아하던 부아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에 만족해했다.

부아는 사티아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또 그때 호수 바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늘 말하잖아, 사티아. 나는 네 생각을 읽을 수 있다니까.”

여기 도착했을 때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너는 장난꾸러기였지.” 사티아가 말했다.

부아가 웃으며 말했다. “네 손.”

“응?” 사티아는 탁자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무심코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

# 그리웠거든.” 부아가 고개를 기울였다. “네 손이 작게 사랑스러운 춤을 추는 거. 너한테 어울려.”

았다. 손가락 끝을 하나씩 대고, 펴고, 비틀고, 다시 하나씩 대는 것을.

사티아는 급히 손을 내리고 반사적으로 말했다. “미안해.”

“뭐? 아냐. 사과할 필요 없어. 나는 좋았다고 얘기한 것뿐이야. 그리웠거든.” 부아가 고개를 기울였다. “네 손이 작게 사랑스러운 춤을 추는 거. 너한테 어울려.”

사티아는 오래전 사람들 앞에서 손을 가만히 두는 방법을 배웠다. 일할 때 성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있는 순간이었다. 사티아는 다시 손을 올려 손가락 춤을 계속했다.

누군가가 보고 있는 가운데 의식적으로 손가락 춤을 추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광축가 아카데미에서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처럼 잘못됐다거나 부끄러운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기분이 좋았다.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기억해?” 사티아가 말했다. “네가 수업 마치고 돌아왔는데, 내가 실수로 방문을 막아서 못 들어왔던 날?”

부아의 두 눈이 반짝였다. “기억나! 네가 무슨 책을 읽고 경화광 창조물을 만들어내려고 했지. 3학년이나 지나야 배우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네가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문틀! 지지대를 만들면서 문틀로 창조물을 보강하려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 불쌍한 수라즈가 우릴 구해야 했지.”

서로 추억을 풀어놓다 보니, 멀리서 침탑에 접근하는 제트 헬리콥터가 작은 점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간 느낌이었다.

몇 분 후, 사티아는 머리칼을 휘날리며 착륙장에서 부아에게 작게 미소를 건넸다. “또 만나자.”

부아의 미소는 여느 때처럼 환했다. “또 11년 후에나 보는 건 아니겠지?”

사티아가 제트 헬리콥터의 열린 문으로 향했다.

“사티아.”

걸음을 멈춘 사티아는 뒤를 돌아봤다.

“비슈카르에 대한 답을 더 찾고 싶으면 창립자를 조사해봐.”

“바트 박사님?” 사티아는 한 손으로 얼굴에 영겨 붙는 머리칼을 떼어냈다. “왜?”

“내가 오랫동안 비슈카르와 함께한 이유가 바로 비쉬와카르마 바트의 유산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것 때

문에 떠난 거야.” 부아는 말이 잘 들리도록 한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바트의 기술과 비슈카르에 대한 비전은... 회사의 노선과는 확연히 달랐지.”

“내가 뭘 알아내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심증이 있어.”

“그 심증이 맞다면?”

“그렇다면 생태도시에서 너를 양팔 벌려 환영할 거야.”

사티아는 웃으며 제트 헬리콥터 좌석 벨트를 맸다. 원치 않은 이별로 가슴이 아파왔지만 괜찮았다. 작별한다고 해도 영원히 못 보는 건 아니니까. 사티아는 답을 찾아야 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든 찾아갈 친구도 있었다.